

BASF, 자동차 3사 보수코팅 장악

미국 3대 자동차 생산기업 재승인 ... 보수페인트 시장 급성장 전망

BASF의 자동차 보수코팅(Refinish Coating) 브랜드 Glasurit System이 미국의 유명한 3대 자동차 생산기업의 테스트를 통과해 다시 한번 기능을 인정받았다.

DaimlerChrysler, Ford Motor 및 General Motors는 Glasurit의 테스트 실험실에서 시행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BASF의 Glasurit System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Ford Motor의 보수페인트 전문가 John Hughes는 “보수페인트 역시 새차에 사용되는 페인트와 동등한 조건의 테스트를 거쳐야한다”라며 “지난 몇년 동안 자동차 보수페인트 시스템의 기능이 몰라보게 향상됐다”라고 극찬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보수시스템이 개발되고 테스트를 거쳤으며 기존의 시스템은 내후성(Weathering), 내충격성(Chip Resistance) 및 부패방지 등의 기능이 향상됐다.

BASF Coatings은 신규자동차 페인트 최대 공급처로 앞으로 보수페인트 사업도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세계 페인트 기술 사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SF는 Glasurit Automotive Refinish의 브랜드로 종합적인 자동차 보수페인트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친화적인 수용성 베이스코트 및 고농도(High-Solid) 페인트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Glasurit Automotive Refinish는 세계적인 여러 자동차 생산기업들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보수페인트 시스템 승인목록을 딜러 및 자동차 보수시설에게 배포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20>